

주제발표 1

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활동: 개인적 견해/의견

송인규 (합신대 교수)

I. 기독교 세계관

(1) 돌아봄: 1980-2010

- (i) 변화, 발전, 보편화?
- (ii) 몇 가지 사항.
 - ① 기독교 세계관 관련 단체, 학교, 모임들.
 - ②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자 (원저술 및 번역서).
 - ③ “기독교 세계관”의 보편화된 사용.

(2) 들여다봄: 최근의 처지

- (i) 첫째 관찰: “기독교 세계관”의 용례와 의미.
 - ①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다.
 - a. 기독교적 가치관.
 - b.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.
 - c. 특정 분야/영역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.
 - ② 성찰이 요구되는 바.
 - a. 만일 “기독교 세계관”이 상기 어구들과 교호적(交互的)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, 왜 우리는 부득이 “기독교 세계관”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?
 - b.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 이상의 어구들이 표현하는 바로써 충분히 cover되는가?
 - c. 만일 우리가 “기독교 세계관”을 포기할 경우, 실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?
- (ii) 둘째 관찰: 과거부터의 질문들과 무응답.
 - ① 기독교 세계관은 어느 특정한 신앙 전통(e.g., Reformed)과만 연관된 것인가?
 - ② 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는데 별 변화가 생기지 않는가?
 - ③ 무엇이 문제인가?: 기독교 세계관 자체?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하는 방식의 문제?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피상적 이해?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?

(3) 내다 봄: 향후의 과제 (개인적 제안)

- (i) 첫째 과제: 기독교 세계관의 정체 확립.
 - ①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?
 - ② 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?
 - ③ 기독교 세계관을 아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차이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?
 - ④ 기독교 세계관을 알지 못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?
- (ii) 둘째 과제: 기독교 세계관과 개인·공동체의 변화 문제.
 - ① 왜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도 변화가 없는가? (기독교 세계관을 알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?)
 - ② 이에 대한 원인 규명[진단] 및 조치.

(iii) 셋째 과제: “구조”와 “방향”에 대한 탐구.

- ① Al Wolters의 「창조.타락.구속」이 가진 특이점.
 - a. 다른 기독교 세계관 책들과 달리 자신의 주장점을 근거로 여러 가지 사안/주제/내용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한 대안 제시적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.
 - b. 그러한 분석과 적용의 이론적 틀이 “구조”와 “방향”이라는 기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된다.
- ②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.
 - a. “구조”와 “방향”이라는 이론적 틀에 대한 평가.
 - b. 만일 이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더 이상 고려의 가치가 없다.
 - c. 그러나 만일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이 틀을 채택하여 여러 가지 사안/주제/내용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.

(iv) 넷째 과제: 기독교 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.

- ①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.
 - a. 서양과 잘 맞지 않는 점.
 - b. 서양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.
- ② 「그리스도인의 비전」과 「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」: 공통점과 차이점 고찰.
- ③ 성경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.
- ④ 오늘날 한국 실정에서의 “기독교 세계관” 확립 (견실성과 적실성) [(i) 첫째 과제와 연관됨].

II. 학문 활동

(1)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활동 사이의 관계 탐구

- (i) 전자와 후자 사이의 관계는?
- (ii)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의 기초 없이는 기독교적 학문 활동을 말할 수 없는가?
- (iii) 상기 질문 [(ii)]에 대한 답변과 답변의 근거는?

(2) 포괄적 고려 사항

- (i) 학문하는 이로서의 부르심: 소명감, 사명 의식.
- (ii) 학문의 내용 --> 지금까지는 주로 이 분야에만 맞추어 생각함.
- (iii) 학문하는 이의 삶: 다른 이들(직원, 동료 교수, 학생 etc.)과의 관계, 강의와 연관한 책임, 학교의 문화적.환경적 풍토, 시간 사용, 다른 공동체(가정, 교회, 사회)에 대한 고려 etc.

(3) 학문과 신앙에 관한 탐구 [최근 자료가 아닐 수도 있음]

- (i) 유형론(typology) (상극/무관/병행/대화/통합 등)의 조사.
e.g., Richard H. Bube, *Putting It All Together* (UPA, 1995).
- (ii) 통합적 시도: 각 분야별 연구서 (일부).
 - ① 철학: J. P. Moreland & William Lane Craig, *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a Christian Worldview* (IVP, 2002); Garrett J. DeWeese, *Doing Philosophy as a Christian* (IVP, 2011).
 - ② 심리학: Gary R. Collins, *Psychology & Theology* (Abingdon, 1981); David N.

Entwistle, *Integrative Approaches to Psychology and Christianity* (Wipf and Stock, 2004).

- ③ 사회학: Richard Perkins, *Looking Both Ways* (Baker, 1987).
- ④ 자연 과학: Del Ratsch, *Science & Its Limits* (IVP, 2000).
- ⑤ 생물학: Richard T. Wright, *Christianity through the Eyes of Faith* (Harper & Row, 1989).
- ⑥ 경영학: Kenman L. Wong & Scott B. Pae, *Business for the Common Good* (IVP, 2011).

(iii) 거대 이슈/주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.

- ① 기독교와 과학: Richard F. Carlson, ed., *Science & Christianity* (IVP, 2000).
- ② 기독교와 심리학: Erick L. Johnson, ed., *Psychology & Christianity* (IVP, 2010).
- ③ 창조와 진화: J. P. Moreland & John Mark Reynolds, eds., *Three Views on Creation and Evolution* (Zondervan, 1999).
- ④ 교회와 정부: P. C. Kemeny, ed., *Church, State and Public Justice* (IVP, 2007).
- ⑤ 심신(心身) 문제: Joel B. Green & Stuart L. Palmer, eds., *In Search of the Soul* (IVP, 2005).

(iv) 각종 이슈/주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/접근 (선별적).

- ① 인종 차별: Douglas R. Sharp, *No Partiality* (IVP, 2002).
- ② 영성: F. Leron Schults & Steven J. Sandage, *Transforming Spirituality* (Baker, 2006).
- ③ 하나님의 행위: Robert John Russell *et al*, eds, *Neuroscience and the Person* (Vatican Observatory, 2002).
- ④ 세계관: David K. Naugle, *Worldview* (Eerdmans, 2002).
- ⑤ 죄가 지성에 미치는 영향: Stephen K. Moroney, *the Noetic Effects of Sin* (Lexington, 2000).
- ⑥ 인간관: Paul Meehl *et al*, eds., *What, Then, Is Man?* (Concordia, 1958).
- ⑦ 학문적 중립성: Roy A. Clouse, *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* (Notre Dame, 1991).

(4) 활동에 대한 제안

- (i) 중요한 책들에 대한 번역.
- (ii) small group teaching의 도입.
- (iii) study group의 활성화.
- (iv)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문, 글쓰기, 저술 활동 장려.